

“신선도 좋은데...” 한파로 떼죽음 ‘냉동송어’ 판로 없어 ‘발동동’

무안군 해제면 송어양식장 2만8000마리 동사

“2년간 애지중지 키웠는데 출하 앞두고 그만...”

식용 가능하지만 판로 없어 전량 폐기될 처지

“2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는데 출하 전에 한파가 집어삼키다니... 앞길이 막막합니다.”

최강 복극 한파로 전남지역에서 동해가 잇따른 가운데 출하를 앞둔 송어가 대량으로 동사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해제면 김주자(72·여)씨의 송어양식장이 얼어붙으면서 송어 2만8000여 마리가 동사했다.

무안과 함평 일대 해역은 지난 8일부터 수온이 2~3도 이하로 떨어져 저수온 경보가 발령됐다. 바닷물이 썰렁

얼어붙으면서 양식장 안의 송어도 순식간에 냉동됐다.

김씨는 2년 전 송어를 입식해 조만간 출하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줄면서 가격이 kg당 7500원대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출하는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마저도 물거품이 됐다.

동사한 송어는 신선도에 문제가 없어 식용할 수 있으나 판로가 없어 김씨가 애를 태우고 있다. 그동안 송어를 주로 횡감용으로 소비하다보니 다른 판로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운반업자에게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어 김씨의 양아들이 일단 급한대로 인근 냉동창고에 동사한 송어를 보관하기로 했다.

냉동 송어는 구이나, 반건조, 탕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양아들이 어떻게든 판로를 알아보기로 했다.

김씨는 “너무 강한 추위가 오다보니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 송어가 동사했다”며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전에 동사한 송어를 공공기관에서 판매한 적도 있다”며 “무안군과 함께 판매처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임시선별검사소에 내리는 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7명으로 집계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육군현장지원팀이 안내를 하고 있다.

광주 청소년 알바 2명 중 1명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2017년보다 모든 유형 경험 비율 올라”

광주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2명 중 1명 꼴로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대우 유형으로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이 꼽혔고 근무 중 욕설과 폭언을 들은 청소년도 30% 가까이 됐다.

이같은 사실은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9월10일부터 12월4일까지 광주지역 청소년 3289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학생 중 한 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49.8%가 ‘그렇다’고 답했다.

임금과 관련한 부당대우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한 경우는 23.6%,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못 받은 경우는 23.2%, 주휴수당을 못 받은 청소년 18.3%,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 16.0%로 조사됐다.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욕설이

나 폭언 등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무시 또는 차별 17.9%, 성적 괴롭힘 8.4%, 폭행 4.2%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와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82.8%나 됐다.

세부적으로는 해결방법을 알지만 참고 일한 경우가 35.5%, 일을 그만 둔 경우 30.1%, 해결방법을 몰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경우가 17.2%로 나타났다. 아무런 대응도 못한 이유는 ‘신고나 항의를 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38.1%), ‘귀찮고 번거로우서’(36.5%)라고 답했다.

광주시 공무원 2명 중 1명 “직장 내 갑질 경험”

‘인격 비하·폭언·폭행’ 36%, “그냥 참아” 74%

지난해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일명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공직사회 내부 갑(甲)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주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실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08명 중 308명(50.7%)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확인된 34.1%보다 16.6%포인트 높은 수치다.

갑질 피해 내용으로는 ‘인격 비하 발언이나 폭언·폭행’이 35.7%(238명)에 달했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호소한 공무원도 195명으로 29.3%로 나타났다.

갑질을 당했을 때 대응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74.4%(229명)는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갑질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했다’는 공직자는 11%(34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3.6%는 ‘대처 방법을 모른다’고 답해 직장 내 갑질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 원인으로는 상명하복식 서열 구조와 권위주의 문화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비롯해 ▲업무 떠넘기기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명령 ▲직급을 이용한 인격 비하 등 폭언 ▲상급자의 편파적 업무지시 ▲업무 관련 의견 무시 ▲과·계장 간 인간관계에 따른 팀 성격에 맞지 않는 추가업무 등을 구체적인 갑질 사례로 들었다.

최이슬 기자

코로나19·물난리로 오토바이 사고·수난구조 증가

지난해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주문이 폭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늘고 집중 호우와 잇단 태풍의 여파로 수난 사고 구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광주지역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줄어든 반면 구조와 생활안전 활동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분야 처리건수는 2019년보다 3.5% 늘어난 총 5573건으로, 하루 평균 15.3건의 구조활동을 했다.

특히 수난 구조는 384건으로 2019

년(26건)보다 무려 14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8월7~9일 집중 호우와 8~9월 북상한 잇단 태풍(장미, 바비, 마이삭, 하이선)에 따른 시설물 침수와 인명 피해, 구조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태풍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급·배수지원 활동도 2019년보다 228건, 비율로는 285% 증가했다.

교통사고 구조건수는 426건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차대차 사고(53%)와 오토바이(12.46%) 사고 등 순이었으며, 특히 오토바이 사고 증가는 코

나19로 비대면 소비에 따른 음식 등 배달서비스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자 시 구조구급과장은 “감염병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해 발생한 전체 화재는 882건으로, 하루 평균 2.4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32명으로 2019년 61명보다 48%, 재산 피해는 32억9500여 만원으로 전년보다 27% 각각 감소했다.

김민정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